

# 『脈經』의 傷寒學說에 관한 연구

이병욱\* · 박현국 · 김기욱\*\*

慶山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A Study of Shang-Han Theory in Mai-Jing*

The Mai-Jing(脈經) is known to everybody as a bible for taking a pulse and as a important matter in Shang-Han theory. On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Shang-Han(傷寒) theory, most oriental medical doctors only valuate that it transmitted a Shang-Han-Lun of Zhang-Zhong-Jing(張仲景). But fewer people distinctly studied on Shang-Han theory of Mai-Jing, and so I studied the Shang-Han theory in Mai-Jing.

This study has a few fields. Firstly, I found out quotations from the Shang-Han-Lun in Mai-Jing, so analyzed alikeness and difference between Mai-Jing and Song pressed Shang-Han-Lun. Secondly, on contents of the other person's Shang-Han theory, it was analyzed by complain group(類症狀), disease group(類病證) and prescription in Shang-Han-Lun-shou-ce(傷寒論手冊).

In every process, I used Access 2000's Query sentence for analysis and outputing. As a result, Mai-Jing cited 257 Zhang-Zhong-Jing's Shang-Han sentences and 366 the others's Shang-Han sentences. And It had 65 Zhang's prescriptions, 56 the others's prescriptions, 3 ointment treatments, 5 degrees acupuncture treatments and 3 degrees moxa treatments for Shang-Han.

Keyword: Mai-Jing(맥경), Shang-Han(상한), Wang-shu-he(왕숙화)

## I. 緒論

한의학에서 '傷寒'이란 넓은 의미에서 外感 熱性 질병을 통칭하는 말이며, 좁은 의미로는 風寒邪에 의하여 생긴 外感病으로 寒에 傷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sup>1)</sup>. 그 중 東漢代에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이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張씨의 傷寒論을 중심으로 수많은 醫家들이 傷寒에 관하여 각자의 主張과 見解를 피력하였는데, 『傷寒雜病論』은 張씨 사후에 漢末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漢代 醫籍들 대부분처럼 亡佚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傷寒論』이 후세에 유전할 수 있었던 것은 魏

1)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정담, 1988, pp.734~735.

晉時代 王叔和가 仲景의 유저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王씨의 정리 이후에도 魏·晉·南北朝代에서 隋·唐代에 이르기까지 張씨의 『傷寒論』이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으며<sup>3)</sup>, 『外臺秘要』에서 보듯이 '傷寒八家'의 하나로써 일반 傷寒學家和 같은 반열에 끼인 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sup>4)</sup>. 이러한 정황과 王씨의 『脈經』이 『內經』, 『難經』 및 扁鵲, 華佗, 張仲景과 관련된 문헌을 분류하여 摘錄한 것<sup>5)</sup>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脈經』에는 張씨의 『傷寒雜病論』의 내용과 기타 '傷寒八家'의 학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이후 傷寒八家의 학설의 쇠퇴하고 송대 이후 중경의 상한학설이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중경의 학설을 후세에 전했다는 점이 특히 부각되어지면서 맥경의 중경상한 학설만이 부각되어졌다. 이에 저자는 『脈經』에 기재된 傷寒 관련 내용들을 연구하여 傷寒學說에 관한 王씨의 공헌을 보다 자세히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 번째 연구는 宋本 『傷寒論』에 기재된 張씨의 傷寒論 조문이 『脈經』에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맥경이 張씨의 傷寒학설을 후세에 전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 연구는 맥경에 기재된 張씨의 이론 이외의 傷寒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좀더 세부적인 연구내용에서는 맥경에서 『傷寒論』 조문을 찾아내는 방법과 기타 傷寒學說 관련내용을 선별하는 방법을 언급했

고, 맥경에 기재된 張씨 『傷寒論』 처방을 밝히고 張씨 이외의 傷寒 處方을 찾아내어 맥경에 기재된 傷寒처방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口服 이외의 傷寒치료법의 형태변화도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기존에 hwp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宋本傷寒論』의 조문의 내용을 교정한 이후, 『傷寒論手冊』<sup>7)</sup>을 근거로 조문번호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전환하여 조문 검색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脈經』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서 『傷寒論』 조문과 비교가 쉽도록 하였다<sup>8)</sup>.

## II. 本 論

### 1. 王叔和의 『傷寒論』 연구에 대한 기존의 평가

王叔和의 이름은 熙이고 高平사람이다. 그는 魏晉시대의 저명한 의가로서 魏의 太醫令을 지냈으며 활동시대는 張仲景의 後과 皇甫謐의 前이다<sup>9)</sup>. 그에 관한 事迹에 대해서는 後魏 高湛의 養生論에 "經方을 두루 공부하고 좋아했고 섭생의 도에 대해서도 날날이 알고 있

- 2) 鄭城采: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p.27.
- 3) 洪元植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45.
- 4)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前掲書, p.1.
- 5) 『中國醫學史』: 前掲書, p.117.
- 6) 趙法新의 3인: 『中醫文獻學辭典』, 中醫古籍出版社, 2000. p.318.

- 7) 重慶市科學技術協會: 『傷寒論手冊』,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4.
- 8) 맥경에서 傷寒學說과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추출하고 다시 傷寒論 조문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을 다시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송본상한론은 하나의 조문이 하나의 레코드를 이루었으나 맥경은 텍스트 타입의 필드가 255글자까지만 지원한다는 점과 메모 타입 필드에서는 본문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Access 2000 특성상 레코드 구성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음을 밝혀둔다.
- 9) 『中國醫學史』: 前掲書, pp.116-117.

있으며 식사할 때에도 잡스럽게 먹지 않았고  
혹 잡스럽게 먹더라도 간혹이었다"라고 기록되  
어 있고 唐 甘伯宗의 名醫傳에 "성품이 조용하  
고 經史에 통했으며 처방과 맥을 깊이 연구하  
여 切診에 조예가 깊었으며 修養의 도를 날날  
이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10)</sup>. 현재  
王叔和의 의학상 공헌은 크게 2가지로 평가되  
고 있다. 첫째는 張機의 『傷寒雜病論』을 정리  
하여 후세에 전한 것이고, 둘째는 『脈經』의  
저술이다. 『脈經』은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초  
기의 맥학전문서적으로서 3세기 초에 저술되  
었다<sup>11)</sup>. 그 내용은 『內經』, 『難經』 및 扁鵲,  
華佗, 張仲景과 관련된 문헌에서 摘錄한 것이  
다<sup>12)</sup>. 그리고 『內經』, 『難經』, 『傷寒論』, 『金  
匱』와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들은 『內經』,  
『難經』, 『傷寒論』, 『金匱』의 부족한 부분을 보  
충할 수 있게 한다<sup>13)</sup>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중경의 학설을 인용  
하였는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았  
다.

## 2. 『脈經』에 기재된 傷寒學說

傷寒學說과 관련된 문장의 선정방법은 다음  
과 같다.

\* 송본상한론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문장

\* 송본상한론 조문에 기재된 처방과 동일한  
처방명을 가진 문장에서 외감열성질환 혹은  
그것에서 전변된 질환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

\* 『傷寒論手冊』의 類病證에 제시된 병증의  
내용을 포함한 문장에서 외감열성질환 혹은  
그것에서 전변된 질환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

\* 『傷寒論手冊』의 類症狀에 제시된 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장에서 외감열성질환 혹은  
그것에서 전변된 질환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

위의 방법을 통하여 『脈經』에서 傷寒과 관  
련된 내용을 633개의 레코드에서 찾아내었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脈經』에 인용된 傷寒論條文 과 配列原則

맥경에서 『傷寒論』의 조문을 찾아내기 위하  
여 사용한 방법은 Access 2000의 쿼리검색을  
동원하였으며 맥경의 문장과 송본상한론의 구  
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검  
색식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송본상한론에  
서는 發汗이라고 되어있는 조문이 맥경에서는  
發其汗으로 되어있고 '宜○○湯' 혹은 '○○湯  
主之'라고 되어있는 것이 '屬○○湯' 등으로 바  
뀌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검색식에서  
는 '汗', '○○湯', '便', '利', '煩' 등의 한글자  
혹은 두세글자의 작은 조각을 조합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을 찾는 방법을 택했다.  
그결과 『脈經』은 상한론 조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문장 257개를 282곳에 기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맥경의 상한론 조문 분  
포현황은 표1로 요약하였다. 『脈經』은 『傷寒  
論』 조문을 여러 치료 방법에 따라서 '可'와  
'不可'의 차례로 배열하고 있다<sup>14)</sup>. 조문간의  
배열은 절대적인 순서의 관계가 없으므로 후  
대 傳本에 따라 조문 배열의 순서가 다른 현  
상이 나타나는데<sup>15)</sup>, 이는 저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맥경의 조

10) 上揭書, p.117.

11) 福州市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  
社, 1992, p.1.

12) 『中國醫學史』: 前揭書, p.117.

13) 『脈經校釋』: 前揭書, p.1.

14)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前揭  
書, p.33.

15)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前揭  
書, p.32.

문배열의 의도는 『傷寒論』의 육경체계를 밝히는데 있지 않고 다만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治法을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배열이라고 볼 수 있다.

표1 맥경 속의 상한론 분포현황

篇名	총판본 상한론 조문
卷一脈形狀指下祕訣第一	178
卷六脾足太陰經病證第五	247, 398
卷六胃足陽明經病證第六	246
卷七病不可發汗證第一	23, 27, 50, 83, 84, 85, 86, 87, 88, 122, 218, 265, 284, 285, 294, 335, 364
卷七病可發汗證第二	12, 13, 1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6, 52, 53, 54, 55, 56, 71, 95, 96, 99, 113, 117, 146, 231, 234, 235, 240, 302
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20, 25, 26, 29, 48, 57, 62, 63, 64, 65, 66, 68, 70, 71, 72, 73, 75, 75, 76, 82, 89, 157, 162, 165, 203, 211, 248, 259, 353
卷七病不可吐證第四	120, 121
卷七病可吐證第五	166, 355
卷七病不可下證第六	130, 131, 132, 171, 204, 205, 206, 233, 251, 273, 286, 326, 330, 347
卷七病可下證第七	94, 106, 124, 125, 126, 131, 135, 136, 136, 152, 207, 208, 213, 214, 215, 217, 220, 236, 237, 240, 242, 252, 253, 256, 256, 260, 320, 321, 322
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16, 21, 22, 28, 45, 49, 58, 59, 60, 61, 67, 69, 76, 77, 78, 79, 80, 91, 93, 98, 103, 104, 105, 107, 118, 123, 134, 137, 139, 140, 147, 149, 149, 150, 151, 153, 156,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8, 194, 195, 212, 219, 221, 228, 238, 244, 250, 257, 258, 279, 354, 357, 359, 380, 391
卷七病可溫證第九	92, 277, 323, 324, 325
卷七病不可灸證第十	115, 116
卷七病可灸證第十一	117, 292, 304, 343, 349
卷七病可刺證第十三	8, 24, 108, 109, 142, 216, 306, 308
卷七病不可水證第十四	141, 209, 226, 380
卷七病可水證第十五	244, 329, 386
卷七病不可火證第十六	110, 111, 112, 113, 114, 119, 153, 200, 221, 284

卷七熱病陰陽交并少陰厥逆 陰陽竭盡生死證第十八	133, 167, 210, 281, 282, 288, 289, 295, 296, 297, 298, 299, 300, 315, 344, 345, 346, 347, 348, 369
卷八平痙濕喝脈證第二	174, 175
卷八平霍亂轉筋脈證第四	382, 383, 384
卷八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	195
卷八平腹滿寒疝宿食脈證第十一	241, 255
卷八平嘔吐洩下利脈證第十四	122, 122,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6, 367, 368, 372, 374, 375, 376, 377, 381
卷九平咽中如有灸鬱喜悲熱 入血室腹滿證第六	143, 144, 145

### 송본상한론 조문과 맥경본의 문장비교

宋本 『傷寒論』과 『脈經』의 문장을 비교하여 관련된 문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배열 순서는 '조문번호', 『傷寒論』조문, '/', '맥경의 문장(편명, 레코드번호ID)'로 되어 있다. '/' 이후의 문장이 없는 것은 맥경에 인용문장이 없는 것이다. '/' 이후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인 것은 맥경에서 인용한 곳이 두군데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왕숙화는 중경 저작의 조문을 선별하였는데 그는 "今搜采仲景舊論, 錄其証候診脈聲色, 對病眞方, 有神驗者, 擬防世急也"<sup>17)</sup>라 하여 수집한 중경의 條文을 심사, 체험한 후에 意義가 있는 脈, 証과 유효한 方을 골라 실었으며 병에 대한 眞方이 아니거나 神驗하지 않으면 아예 채록하지 않았다<sup>18)</sup>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두 판본을 비교해서 맥

경에 없는 『傷寒論』 조문을 살펴보면 좀더 그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맥경에 없는 『傷寒論』 조문들은 첫째 "太陽之爲病其脈浮頭項強痛而惡寒", "太陽病發熱汗出惡風脈緩者名爲中風", "太陽病或已發熱或未發熱必惡寒體痛嘔逆脈陰陽俱緊者名曰傷寒"과 같이 임상에서 구체적인 治法을 언급하지 않은 綱領같은 조문, 둘째 "傷寒一日太陽受之脈若靜者爲不傳頗欲吐若躁煩脈數急者爲傳也", "傷寒二三日陽明少陽證不見者爲不傳也", "問曰惡寒何故自罷答曰陽明居中土也萬物所歸無所復傳始雖惡寒二日自止此爲陽明病也"과 같이 治法이 제시되지 않은채 傳經의 유무를 판단하는 극히 이론적인 조문, 셋째 "太陽病欲解時從巳至未上", "陽明病欲解時從申至戌上", "少陽病欲解時從寅至辰上" 등과 같은 치료 및 변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문들을 기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宋本 『傷寒論』 조문과 脈經本 『傷寒論』 비교

- 001 "太陽之爲病其脈浮頭項強痛而惡寒"
- 002 "太陽病發熱汗出惡風脈緩者名爲中風"
- 003 "太陽病或已發熱或未發熱必惡寒體痛嘔逆脈陰陽俱緊者名曰傷寒"
- 004 "傷寒一日太陽受之脈若靜者爲不傳頗欲吐若躁煩脈數急者爲傳也"
- 005 "傷寒二三日陽明少陽證不見者爲不傳也"

- 16) 연구결과는 지면관계상 일부만 수록하였음. 전체내용은 경산대학교 원전 의사학교실, 동국대학교 원전 의사학교실, 대한한의 학원전 학회에 별도 보관함.
- 17) 成无己: 『注解傷寒論』,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5年 p.372.
- 18)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관한 研究』: 前掲書, p.29.

- 006“太陽病發熱而渴不惡寒者爲溫病若發汗已身灼熱者名曰風溫風溫爲病脈陰陽俱浮自汗出身重多眠睡鼻息必鼾語言難出若被下者小便不利直視失雖若被火者微發黃色劇即如驚癇時瘵瘵若火熏之一逆尙引日再逆促命期”
- 007“病有發熱惡寒者發於陽也無熱惡寒者發於陰也發於陽者七一愈發於陰者六日愈以陽數七陰數六也”
- 008“太陽病頭痛至七日以上自愈者以行其經盡故也若欲作再經者針足陽明使經不傳即愈”/“太陽病頭痛至七日自當愈其經竟故也若欲作再經者當針足陽明使經不傳則愈”(卷七病可刺證第十三1328)
- 009“太陽病欲解時從巳至未上”
- 010“風家表解而不了了者十二日愈”
- 011“病人身大熱反欲得衣者熱在皮膚熱在骨髓也身大寒反不欲近衣者寒在皮膚熱在骨髓也”
- 012“太陽中風陽浮而陰弱陽浮者熱自發陰弱者汗自出啻啻惡寒淅淅惡風翁翁發熱鼻鳴乾嘔者桂枝湯主之”/“太陽中風陽浮而陰濡弱者熱自發濡弱者汗自出啻啻惡寒淅淅惡風翁翁發熱鼻鳴乾嘔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097)
- 013“太陽病頭痛發熱汗出惡風者桂枝湯主之”/“太陽病頭痛發熱汗出惡風若惡寒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096)
- 014“太陽病項背強几几反汗出惡風者桂枝加葛根湯主之”/“太陽病項背強几几反汗出惡風屬桂枝加葛根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2)
- 015“太陽病下之後其氣上衝者加與桂枝湯方用前法若不上衝者不可與之”
- 016“太陽病三日已發汗若吐若下若溫針仍不解者此爲壞病桂枝不中與之也觀其脈證知犯何逆隨證治之”/“太陽病三日已發其汗吐下溫針而不解此爲壞病桂枝復不中與也觀其脈證知犯何逆隨證而治之”(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1243)
- 017“若酒客病不可與桂枝湯得之即嘔以酒客不喜甘故也”
- 018“喘家作桂枝湯加厚朴杏子佳”
- 019“凡服桂枝湯嘔者其後必吐膿血也”
- 020“太陽病發汗遂漏不止其人惡風小便難四肢微急難以屈伸者桂枝加附子湯主之”/“太陽病發其汗遂漏而不止其人惡風小便難四肢微急難以屈伸屬桂枝加附子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1129)
- 021“太陽病下之後脈促胸滿者桂枝去芍藥湯主之”/“太陽病下之其脈促胸滿者屬桂枝去芍藥湯若微寒屬桂枝去芍藥加附子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1282)
- 022“若微寒者桂枝去芍藥加附子湯主之”/“若微寒屬桂枝去芍藥加附子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1282)
- 023“太陽病得之八九日與瘧狀發熱惡寒熱多寒少其人嘔清便欲自可一日二三度發脈微緩者爲欲愈也脈微而惡寒者此陰陽俱虛不可更發汗更下更吐也面色反有熱色者未愈解也以其不能得少汗出身必痒宜桂枝麻黃各半湯”/“太陽病得之八九日如瘧狀發熱而惡寒熱多寒少其人嘔清便續自下一日再三發其脈微而惡寒此爲陰陽俱虛不可復發汗也”(卷七病不可發汗證第一1051)
- 024“太陽病初服桂枝湯反煩不解者先刺風池風府却與桂枝湯即愈”/“太陽病初服桂枝湯而反煩不解者當先刺風池風府乃却與桂枝湯則愈”(卷七病可刺證第十三1329)
- 025“服桂枝湯大汗出脈洪大者與桂枝湯如前法若形似瘧一日再發者汗出必解宜桂枝二麻黃一湯”/“服桂枝湯大汗出若脈但洪大與桂枝湯若其形如瘧一日再三發汗出便解屬桂枝二麻黃一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1130)
- 026“服桂枝湯大汗出後大煩渴不解脈洪大者白虎加人參湯主之”/“服桂枝湯大汗出後大煩渴不解若脈洪大屬白虎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1131)
- 027“太陽病發熱惡寒熱多寒少宜桂枝二越婢一湯脈微弱者此無陽也不可發汗”/“太陽病發熱惡寒熱多寒少脈微弱則無陽也不可復發其汗”(卷七病不可發汗證第一1052)
- 028“服桂枝湯或下之仍頭項強痛翁翁發熱無汗心

- 下滿微痛小便不利者桂枝湯去桂加茯苓白朮湯主之”/“服桂枝湯下之頭項強痛翁翁發熱無汗下下滿微痛小便不利屬桂枝去桂加茯苓朮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1261)
- 029“傷寒脈浮自汗出小便數心煩微惡寒脚攣急反與桂枝湯欲攻其表此誤也得之便厥咽中乾煩燥吐逆者作甘草乾姜湯與之以復其陽若厥愈足溫者更作芍藥甘草湯與之其脚即伸若胃氣不和譫語者少與調胃承氣湯若重發汗復加燒針者四逆湯主之”/“傷寒脈浮自汗出小便數頗復微惡寒而脚攣急反與桂枝湯欲攻其表得之便厥咽中乾煩燥吐逆當作甘草乾薑湯以復其陽厥愈足溫更作芍藥甘草湯與之其脚即伸而胃氣不和譫語可與承氣湯重發其汗復加燒針者屬四逆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1132)
- 030“問曰證象陽旦按法治之而增劇厥逆咽中乾兩脛拘急而譫語師曰言夜半手足當溫兩脚當伸復加師言何以知此答曰寸口脈浮而大浮即為風大即為虛風即生微熱虛即兩脛攣病證象桂枝因加附子參其間增桂令汗出附子溫經亡陽故也厥逆咽中乾煩燥陽明內結譫語煩亂更飲甘草乾姜湯夜半陽氣還兩足當熱脛常微拘急重與芍藥甘草湯微乃脛伸以承氣湯微當即止譫語故知病何愈”
- 031“太陽病項背強几几無汗惡風者葛根湯主之”/“太陽病項背強几几無汗惡風屬葛根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3)
- 032“太陽病與陽明合病者必自下利葛根湯主之”/“太陽與陽明合病而自利不嘔者屬葛根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4)
- 033“太陽與陽明合病不下利但嘔者葛根加半夏湯主之”/“太陽與陽明合病不下利但嘔屬葛根加半夏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5)
- 034“太陽病桂枝證醫反下之利遂不止脈促者表未解也喘而汗出者葛根黃連黃芩湯主之”/“太陽病桂枝證醫反下之遂利不止其脈促者表未解喘而汗出屬葛根黃芩黃連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6)
- 035“太陽病頭痛發熱身疼腰痛骨節疼痛惡風無汗而喘者麻黃湯主之”/“太陽病頭痛發熱身體疼痛骨節疼痛惡風無汗而喘屬麻黃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7)
- 036“太陽與陽明合病喘而胸滿者不可下宜麻黃湯”/“太陽與陽明合病喘而胸滿不可下也屬麻黃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8)
- 037“太陽病十日以去脈浮細而嗜臥者外已解也設胸滿脇痛者與小柴胡湯脈但浮者與麻黃湯”/“太陽病十日以去脈浮細嗜臥此為外解設胸滿脇痛與小柴胡湯脈浮者屬麻黃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14)
- 038“太陽中風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不汗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若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服之即厥逆筋惕肉瞤此為逆也”/“太陽中風脈浮緊發熱惡寒身體疼痛不汗出而煩躁頭痛屬大青龍湯脈微弱汗出惡風不可服之服之則厥筋惕肉瞤此為亦也”(卷七病可發汗證第二1109)
- 039“傷寒脈浮緩身不疼但重乍有輕時無少陰證者大青龍湯發之”/“傷寒脈浮緩其身不疼但重乍有輕時無少陰證者大青龍湯發之”(卷七病可發汗證第二1110)
- 040“傷寒表不解心下水氣乾嘔發熱而解或渴或利或噎或小便不利小腹滿或喘者小青龍湯主之”/“傷寒表不解心下水氣乾嘔發熱而咳或湯或利或噎或小便不利小腹滿或微喘屬小青龍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11)
- 041“傷寒心下水氣咳而微喘發熱不渴服湯已渴者此寒去欲解也小青龍湯主之”/“傷寒心下水氣咳而微喘發熱不渴服湯已渴者此寒去為欲解屬小青龍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112)
- 042“太陽病外證未解脈浮弱者當以汗解宜桂枝湯”/“太陽病外證未解其脈浮弱當以汗解宜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078)
- 043“太陽病下之微喘者表未解故也桂枝加厚朴杏子湯主之”/“太陽病下之微喘者表未解故也屬桂枝加厚朴杏子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088)
- 044“太陽病外證未解不可下也下之為逆欲解外者宜桂枝湯”

- 045 “太陽病先發汗不解而復下之脈浮者不愈浮爲在外而反下之故令不愈今脈浮故知在外當須解外即愈宜桂枝湯”/“太陽病先發其汗不解而下之其脈浮者不愈浮爲在外而反下之故令不愈今脈浮故在外當解其外則愈屬桂枝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1262)
- 046 “太陽病脈浮緊無汗發熱身疼痛八九日不解表證仍在此當發其汗麻黃湯主之服湯已微除其人發煩目瞑劇者必衄衄乃解所以然者陽氣重故也”/“太陽病脈浮緊無汗而發熱其身疼痛八九日不解表候續在此當發其汗服湯微除發煩目瞑劇者必衄衄乃解所以熱者陽氣重故也屬麻黃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1092)
- 047 “太陽病脈浮緊發熱身無汗自衄者愈”
- 048 “二陽併病太陽初得病時發其汗汗先出不微因轉屬陽明續自微汗出不惡寒若太陽病證不罷者不可下下之爲逆如此可小發汗設面色緣緣正赤者陽氣沸鬱在表當解之熏之若發汗不微不足言陽氣沸鬱不得越當汗不汗其人煩燥不知痛處乍在腹中乍在四肢按之不可得其人短氣但坐以汗出不微故也更發汗即愈何以知汗出不微以脈翳故知也”/“二陽併病太陽初得病時發其汗汗先出復不微因轉屬陽明屬自微汗出不惡寒若太陽證不罷不可下下之爲逆如此者可小發其汗設面色緣緣正赤者陽氣不鬱在表當解之熏之若發汗不大微不足言陽氣不鬱不得越當汗而不汗其人躁煩不知痛處乍在腹中乍在四肢按之不可得其人短氣但坐汗出而不撤故也更發其汗即愈何以知其汗不撤脈溢故以知之”(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1121)
- 049 “脈浮數者法當汗出而愈若下之身重心悸者不可發汗當自汗出乃解所以然者尺中脈微此裏虛須表裏實津液自和便自汗出愈”/“脈浮數法當汗出而愈而下之則身體重心悸不可發其汗當自汗出而解所以然者尺中脈微以裏虛須表裏實津液和即自汗出愈”(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1244)
- 050 “脈浮緊者法當身疼痛宜以汗解之假令尺中遲

者不可發汗何以知其然以營氣不足血少故也”/“脈浮而緊法當身體疼痛當以汗解假令尺中脈遲者不可發其汗何以故然此爲榮氣不足血微少故也”(卷七病不可發汗證第一1040)

<이하생략>

## 2) 『脈經』의 傷寒範疇

맥경의 상한학설의 범주는 장중경의 『傷寒論』에 해당하는 부분과 張씨의 『傷寒論』 이외의 풍한으로 인한 상한에 관한 내용 그리고 광의의 傷寒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張씨의 『傷寒論』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張씨 『傷寒論』 이외의 풍한으로 인한 상한에 관한 내용과 광의의 상한에 관련된 내용은 『傷寒論手冊』의 類病證과 類症狀를 이용한 검색에서 얻어진 내용 중 張씨의 상한학설을 제외한 부분을 골라내는 방법과 광의의 상한과 관련된 溫疫, 熱病, 溫病, 風濕의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찾아 외감열성 질환과의 관련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脈經』에 기재된 傷寒 관련 내용 중 張씨의 傷寒論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366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고 仲景의 傷寒理論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傷寒學說도 그에 못지 않게 수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표 2 脈經에서 상한학설 검색에 사용한 類病症 목록

中風	奔豚	熱入血室	胃家實	太陽病	
亡陽	如瘡狀	痞	脾約	陽旦	腹痛
傷寒	寒格	痞熱	蓄血	陽明病	腹中雷鳴
厥陰病	少陰病	瘀血	藏厥	霍亂	腹脹滿
閤病	少陽病	癰膿	藏結	風溫	腹中轉氣
固瘕	并病	穀瘕	除中	飲食如故	心下滿
壞病	戴陽	純陰結	陰陽易	下利	心下急
太陰病	水逆	結胸	陽微結	大便溏	心下硬
發熱	身涼	瘦癯	如狂	下重	心下結
微熱	項背強痛	脚即伸	神志不清	不下利	心下痞硬
無大熱	項不强	煩躁	咳逆	大便下血	心下支結
不發熱	潤	煩	喘逆	膿血	胸下結硬
潮熱	瘥	躁	息高	大便硬	心下痛
其熱不潮	動惕	躁煩	短氣	燥屎	心中疼熱
往來寒熱	痛	不煩	少氣	大便不硬	胸中痛
惡寒	不痛	不得眠	不得息	不大便	脇痛
振寒	身踈	不得臥	噦	不更衣	兩脇拘急
不惡寒	腫	不得寐	噎	大便難	少腹滿
惡風	奔豚	多眠睡	口乾渴	不通者	少腹硬
汗出	頭痛	欲眠睡	口燥	小便利	少腹急結
自汗	頭重	嗜臥	欲飲水	小便清	痞
無汗	頭眩	欲寐	不口渴	小便白	結胸
盜汗	冒	欲臥	嘔吐	小便不利	咽干燥
頭汗出	直視	喜忘	逆	小便難	咽痛
氣上冲	衄血	驚悸	唾	小便少	月經
發黃	口苦	冒心忪惕	吐血	不尿	
不發黃	舌苔	心憤憤	不能食	胸脇滿	
振慄	厥逆	恍惚心亂	不欲食	胸中窒	
身痛	指頭寒	譫語	不能消谷	脇下滿	
腰痛	不厥逆	譫語止	不受食	脇下硬滿	
身不疼	手足溫	鄭聲	能食		
支節疼痛	手足不溫	懊憹	消谷善肌		
身重	拘急	發狂	欲食		

(1) 『脈經』의 기타 傷寒學說

맥경의 기타 상한관련 내용들을 맥경의 순서대로 배열하면 아래<sup>19)</sup>와 같고 분포사항은 표3와 같다.

① 『脈經』의 기타 傷寒學說

“寸口脈浮大而疾者名曰陽中之陽病苦煩滿身熱頭痛腹中熱寸口脈沈細者名曰陽中之陰病苦悲傷不樂惡聞人聲少氣時汗出陰氣不通脾不能舉”(卷一采脈陰陽大法第九)

“夫風傷陽寒傷陰陽病順陰陰病逆陽陽病易治陰病難治在腸胃之間以藥和之若在經脈之間鍼灸病已”(卷一采脈陰陽大法第九)

“問曰嘗爲人所難緊脈何所從來師曰假令亡汗若吐肺中寒故令緊假令欬者坐飲冷水故令緊假令下利者以胃中虛冷故令緊也”(卷一采災怪恐怖雜脈第十二)

“間來而急者病正在心藏氣也脈來疾者爲風也脈來滑者爲病食也脈來滑躁者病有熱也脈來澁者爲病寒濕也”(卷一遲疾短長雜脈法第十三)

“脈浮緊且滑直者外熱內冷不得大小便”(卷一遲疾短長雜脈法第十三)

“脈洪大見急病速進在外苦頭發熱癰腫脈細小緊急病速進在中寒爲疝瘕積聚腹中者痛”(卷一遲疾短長雜脈法第十三)

“右手關前寸口陰絕者無肺脈也苦短氣欬逆喉中塞噫逆刺手陽明經治陽”(卷二平三關陰陽二十四氣脈第一)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陽實者手太陽經也病苦身熱熱來去汗出而煩心中滿身重口中生瘡”(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左手寸口人迎以前脈陰陽俱實者手少陰與太

陽經俱實也病苦頭痛身熱大便難心腹煩滿不得臥以胃氣不轉水穀實也”(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左手關上脈陽實者足少陽經也病苦腹中氣滿飲食不下咽乾頭重痛酒酒惡寒脇痛”(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者足少陰經也病苦舌燥咽腫心煩噎乾胸脇時痛喘咳汗出小腹脹滿腰背強急體重骨熱小便赤黃好怒好忘足下熱疼四肢黑耳聾”(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左手尺中神門以後脈陰實者足少陰經也病苦舌燥咽腫心煩噎乾胸脇時痛喘咳汗出小腹脹滿腰背強急體重骨熱小便赤黃好怒好忘足下熱疼四肢黑耳聾”(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實者手太陰經也病苦肺脹汗出若露上氣喘逆咽中塞如噎嘔狀”(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陽實者手陽明經也病苦腹滿善喘咳面赤身熱喉咽中如蟻狀”(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寸口氣口以前脈陰陽俱實者手太陰與陽明經俱實也病苦頭痛目眩驚狂喉痺痛手臂卷脅叻不收”(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關上脈陰虛者足太陰經也病苦洩注腹滿氣逆霍亂嘔吐黃疸心煩不得臥腸鳴”(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關上脈陽實者足陽明經也病苦腹中堅痛而熱汗不出如溫瘡唇口乾善噦乳澀缺盆腋下腫痛”(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關上脈陽虛者足陽明經也病苦脛寒不得臥惡寒灑灑目急腹中痛虛鳴時寒時熱唇口乾面目浮腫”(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關上脈陰陽俱實者足太陰與陽明經俱實也病苦脾脹腹堅搶脇下痛胃氣不轉大便難時反洩利腹中痛上衝肺肝動五臟立喘鳴多驚身熱汗不出喉痺精少”(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右手尺中神門以後脈陰虛者足少陰經也病苦足脛小弱惡風寒脈代絕時不至足寒上重下輕行不

19) 연구결과는 지면관계상 일부만 수록하였음. 전체내용은 경산대학교 원전의사학교실, 동국대학교 원전의사학교실, 대한한의학원전학회에 별도 보관함.

可以按地少腹脹滿上搶胸脇痛引肋下”(卷二平人迎神門氣口前後脈第二)

“寸口脈浮中風發熱頭痛宜服桂枝湯·葛根湯針風池·風府嚮火灸身摩治風膏覆令汗出”(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緊苦頭痛骨肉疼是傷寒宜服麻黃湯發汗針肩衝·顛顛摩治傷寒膏”(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微苦寒為衄宜服五味子湯摩茱萸膏令汗出”(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數即為吐以有熱在胃管燻胸中宜服藥吐之及針胃管服除熱湯若是傷寒七八日至十日熱在中煩滿渴者宜服知母湯”(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弱腸氣虛自汗出而短氣宜服茯苓湯·內補散適飲食消息勿極勞針胃管補之”(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濡陽氣弱自汗出時虛損病宜服乾地黄湯·諸損丸·內補散·牡蠣散并粉針大衝補之”(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遲上焦有汗心痛咽酸吐酸水宜服附子湯·生薑湯·茱萸圓調和飲食以煖之”(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實即生熱在脾肺嘔逆氣塞虛即生寒在脾胃食不消化有熱即宜服竹葉湯·葛根湯有汗宜服茱萸圓·生薑湯”(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細發熱嘔吐宜服黃芩龍膽湯吐不止宜服橘皮桔梗湯俱中府”(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關脈遲胃中寒宜服桂枝湯·茱萸烏頭丸針胃脘補之”(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尺脈微厥逆小腹中拘急有寒氣宜服小建中湯”(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肺者西方金萬物之所終宿葉落柯萋萋枝條其杌然獨在其脈為微浮毛衛氣遲營氣數數則在上遲則在下故名曰毛陽當陷而不陷陰當昇而不昇為邪所中陽中邪則卷陰中邪則緊卷則惡寒緊則為慄寒慄相薄故名曰瘧弱而發熱”(卷三肺大腸部第四)

“肺脈急甚為癲疾微急為肺寒熱怠惰咳唾血引腰背胸苦鼻息肉不通緩甚為多汗微緩為痿偏風頭以下汗出不可止大甚為脛腫微大為肺痺引胸背起腰內小甚為飡洩微小為消痺”(卷三肺大腸部第四)

“脈緊上寸口者中風風頭痛亦如之”(卷四采三部九候脈證第一)

“緊則為寒絃數為瘡”(卷四平雜病脈第二)

“瘧脈自絃絃數多熱絃遲多寒微則為虛代散則死絃為痛痺偏絃為飲雙絃則脇下拘急而痛其人膏壘惡寒”(卷四平雜病脈第二)

“脈大寒熱在中”(卷四平雜病脈第二)

“伏者霍亂”(卷四平雜病脈第二)

“凡亡汗肺中寒飲冷水咳嗽下利胃中虛冷此等其脈並緊”(卷四平雜病脈第二)

“浮而大者風”(卷四平雜病脈第二)

“浮而大者中風頭重鼻塞”(卷四平雜病脈第二)

“浮而緩皮膚不仁風寒入肌肉”(卷四平雜病脈第二)

“浮洪大長者風眩癲疾”(卷四平雜病脈第二)

“大堅疾者癲病”(卷四平雜病脈第二)

“洪大者傷寒熱病”(卷四平雜病脈第二)

“浮洪大者傷寒鞞吉春成病”(卷四平雜病脈第二)

“沈而急病傷寒爆發虛熱”(卷四平雜病脈第二)

“診傷寒病盛脈浮大者生沈小者死”(卷四診百病死生訣第七)

“傷寒已得汗脈沈小者生浮大者死”(卷四診百病死生訣第七)

“溫病三四日以下不得汗脈大疾者生脈細小難得者死不治”(卷四診百病死生訣第七)

“溫病穰穰大熱其脈細小者死”(卷四診百病死生訣第七)

“溫病下利腹中痛甚者死不治”(卷四診百病死生訣第七)

“溫病汗不出出不至足者死厥逆汗出脈堅強急者生虛緩者死”(卷四診百病死生訣第七)

“溫病二三日身體熱腹滿頭痛飲食如故脈直而疾者八日死四五日頭痛腹滿而吐脈來細強十二日死八九日頭不疼身不痛目不赤色不變而反利脈來

牒牒按之不彈手時大心下堅十七日死”(卷四診百病死生訣第七)

(이하생략)

표 3 맥경의 기타 상한학설 분포표

卷一第九 2	卷七第一 17	卷八第二 20
卷一第十三 3	卷七第二 11	卷八第三 7
卷一第十二 1	卷七第三 1	卷八第四 1
卷二第一 1	卷七第四 2	卷八第五 6
卷二第二 13	卷七第五 3	卷八第六 1
卷二第三 11	卷七第六 24	卷八第七 3
卷三第四 2	卷七第七 3	卷八第八 15
卷四第一 1	卷七第八 2	卷八第九 13
卷四第二 13	卷七第九 3	卷八第十 2
卷四第七 17	卷七第十一 2	卷八第十一 12
卷五第三 1	卷七第十三 21	卷八第十二 2
卷五第四 1	卷七第十四 4	卷八第十三 6
卷六第一 2	卷七第十五 3	卷八第十四 10
卷六第三 1	卷七第十六 2	卷八第十五 13
卷六第五 4	卷七第十八 16	卷八第十六 3
卷六第七 8	卷七第十九 1	卷九第二 6
卷六第八 1	卷七第二十 9	卷九第三 7
卷六第九 1	卷七第二十一 10	卷九第四 3
	卷七第二十二 5	卷九第五 5
	卷七第二十三 3	卷九第八 1
		卷十 5

### 3) 『脈經』에 기재된 송본상한의 처방

#### 『脈經』에 기재된 송본상한의 처방과 맥경조문

맥경에는 송본상한론에 기재된 총 114개의 처방명중 총 65개의 처방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중에는 송본상한과 조문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한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처방명이 일치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葛根湯의 경우 “太陽病項背強几几無汗惡風屬葛根湯

(卷七病可發汗證第二)”, “太陽與陽明合病而自利不嘔者屬葛根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寸口脈浮中風發熱頭痛宜服桂枝湯·葛根湯針風池·風府向火灸身摩治風膏覆今汗出(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寸口脈實即生熱在脾肺嘔逆氣塞虛即生寒在脾胃食不消化有熱即宜服竹葉湯·葛根湯有汗宜服茱萸丸·生薑湯(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太陽病無汗而小便反少氣上衝胸口噤不得語欲作剛瘧葛根湯主之(卷八平瘧濕暍脈證第二)” 처럼 총 다섯 군데에서 상한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기재되었다. 이 중에 앞의 두 문장을 제외한 세 문장은 송본상한론에 없는 문장이다. 그러나 374번 조문 “下利譫語者有燥屎也宜小承氣湯”와 같이 『脈經』에 “下利而譫語爲有燥屎也宜下之(卷八平嘔吐洩下利脈證第十四)”라고 인용한 것은 조문은 있으나 처방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므로 아래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① 『脈經』에 기재된 宋本 『傷寒論』 처방

『脈經』에는 宋本 『傷寒論』의 처방 65개가 162곳에서 傷寒治方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sup>20)</sup>와 같다.

##### 葛根加半夏湯

1) 太陽與陽明合病不下利但嘔屬葛根加半夏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 葛根湯

1) 寸口脈浮中風發熱頭痛宜服桂枝湯·葛根湯針風池·風府向火灸身摩治風膏覆今汗出(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2) 寸口脈實即生熱在脾肺嘔逆氣塞虛即生寒在脾胃食不消化有熱即宜服竹葉湯·葛根湯有汗宜服茱萸丸·生薑湯(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

20) 연구결과는 지면관계상 일부만 수록하였음. 전체내용은 경산대학교 원전의사학교실, 동국대학교 원전의사학교실, 대한한의학회전학회에 별도 보관함.

第三)

3) 太陽病無汗而小便反少氣上衝胸口噤不得語  
慾作剛瘧葛根湯主之(卷八平瘧濕喝脈證第二)

4) 太陽病項背強几几無汗惡風屬葛根湯(卷七  
病可發汗證第二)

5) 太陽與陽明合病而自利不嘔者屬葛根湯(卷  
七病可發汗證第二)

#### 葛根黃芩黃連湯

1) 太陽病桂枝證醫反下之遂利不止其脈促者表  
未解喘而汗出屬葛根黃芩黃連湯(卷七病可發  
汗證第二)

#### 甘草乾薑湯

1) 傷寒脈浮自汗出小便數頗復微惡寒而脚攣急  
反與桂枝湯欲攻其表得之便厥咽乾煩燥吐逆當  
作甘草乾薑湯以復其陽厥愈足溫更作芍藥甘草  
湯與之其脚即伸而胃氣不和譫語可與承氣湯重  
發其汗復加燒針者屬四逆湯(卷七病發汗以後  
證第三)

#### 甘草附子湯

風濕相搏骨節疼痛煩掣痛不得屈伸近之則痛劇  
汗出短氣小便不利惡風不欲去衣或身微腫者甘  
草附子湯主之(卷八平瘧濕喝脈證第二)

#### 甘草瀉心湯

傷寒中風醫反下之其人下利日數十行穀不化腹  
中雷鳴心下痞堅而滿乾嘔而煩不能得安醫見心  
下痞爲病不盡復重下之其痞益甚此非結熱但中  
虛客氣上逆故使之堅屬甘草瀉心湯(卷七病發  
汗吐下以後證第八)

#### 甘草湯

1) 婦人熱利重下新產虛極白頭翁加甘草湯主之(卷  
九平產後諸病鬱冒中風發熱煩嘔下利證第三)

2) 心下有淡飲胸脇支滿目眩甘草湯主之(卷八  
平肺痿癰咳逆上氣痰陰脈證第十五)

陰毒爲病身重背強腹中絞痛咽喉不利毒氣攻心  
心下堅強短氣不得息嘔逆脣青面黑四肢厥冷其  
脈沈細緊數身如被打五六日可治至七日不可治  
也或傷寒初病一二日便結成陰毒或服藥六七日  
以上至十日變成陰毒甘草湯主之(卷八平陽毒

陰毒百合孤感脈證第三)

#### 乾薑附子湯

1) 下以後復發其汗者則晝日煩躁不眠夜而安靜  
不嘔不渴而無表證其脈沈微身無大熱屬乾薑附  
子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 乾薑黃芩黃連人參湯

1) 傷寒本自寒嘔醫復吐之寒格更遂吐食入即出  
屬乾薑黃芩黃連人參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  
證第八)

#### 桂枝加葛根湯

1) 太陽病項背強几几反汗出惡風屬桂枝加葛根  
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 桂枝加桂湯

1) 燒針令其汗針處被寒核起而赤者必發賁豚氣  
從小腹上撞心者灸其核上一壯與桂枝加桂湯(卷  
七病可發汗證第二)。(卷七病可灸證第十  
一)

#### 桂枝加大黃湯

1) 太陽病醫反下之因腹滿時痛爲屬太陰屬桂枝  
加芍藥湯大實痛屬桂枝加大黃湯(卷七病發汗  
吐下以後證第八)

#### 桂枝加附子湯

1) 太陽病發其汗遂漏而不止其人惡風小便難四  
肢微急難以屈伸屬桂枝加附子湯(卷七病發汗  
以後證第三)

#### 桂枝加芍藥湯

1) 太陽病醫反下之因腹滿時痛爲屬太陰屬桂枝  
加芍藥湯大實痛屬桂枝加大黃湯(卷七病發汗  
吐下以後證第八)

#### 桂枝加厚朴杏子湯

1) 太陽病下之微喘者表未解故也屬桂枝加厚朴  
杏子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 桂枝甘草龍骨牡蠣湯

1) 火逆下之因燒針煩躁屬桂枝甘草龍骨牡蠣湯  
(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 桂枝甘草湯

1) 發汗過多以後其人又手自冒心心下悸而欲得  
按之屬桂枝甘草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桂枝去芍藥加附子湯

1) 太陽病下之其脈促胸滿者屬桂枝去芍藥湯若微寒屬桂枝去芍藥加附子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桂枝去芍藥湯

1) 太陽病下之其脈促胸滿者屬桂枝去芍藥湯若微寒屬桂枝去芍藥加附子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桂枝附子湯

1) 傷寒八九日風濕相搏身體疼痛不能自轉側不嘔不渴脈浮虛而澁者桂枝附子湯主之若其人大大便硬小便自利者亦附子湯主之(卷八平瘧濕喝脈證第二)

桂枝二麻黃一湯

1) 服桂枝湯大汗出若脈但洪大與桂枝湯若其形如瘧一日再三發汗出便解屬桂枝二麻黃一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桂枝人蔘湯

1) 太陽病外證未除而數下之遂挾熱而利不止心下痞堅表裏不解屬桂枝人蔘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桂枝湯

1) 關脈遲胃中寒宜服桂枝湯·茱萸烏頭丸針胃脘補之(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2) 大下以後不可更行桂枝湯汗出而喘無大熱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3) 脈浮者病在表可發其汗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4) 發汗後不可更行桂枝湯汗出而喘無大熱可以麻黃杏仁甘草石膏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5) 病常自汗出此為營氣和營氣和而外不解此為不和也營行脈中為陰主內衛行脈外為陽主外復發其汗衛和則愈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6) 病人藏無他病時發熱自汗出而不愈此衛氣不和先其時發汗則愈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7) 病者煩熱汗出即解復如瘧狀日晡所發熱此屬

陽明脈浮虛者常發其汗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8) 服桂枝湯大汗出大煩渴不解若脈洪大屬白虎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9) 服桂枝湯大汗出若脈但洪大與桂枝湯若其形如瘧一日再三發汗出便解屬桂枝二麻黃一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10) 服桂枝湯下之頭項強痛翁翁發熱無汗心下滿微痛小便不利屬桂枝去桂加茯苓朮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11) 傷寒大下後復發其汗心下痞惡寒者表未解也不可攻其痞當先解表表解乃攻其痞解表屬桂枝湯攻痞屬大黃黃連瀉心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12) 傷寒脈浮自汗出小便數頗復微惡寒而腳攣急反與桂枝湯欲攻其表得之便厥咽乾煩燥吐逆當作甘草乾薑湯以復其陽厥愈足溫更作芍藥甘草湯與之其脚即伸而胃氣不和譫語可與承氣湯重發其汗復加燒針者屬四逆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13) 傷寒發汗以解半日許復煩其脈浮數可復發其汗屬桂枝湯(卷七病發汗以後證第三)

14) 傷寒不大便六七日頭痛有熱與承氣湯其大便反青此為不在裏故在表也當發其汗頭痛者必衄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15) 傷寒醫下之續得下利清穀不止身體疼痛急當救裏身體疼痛清便自調急當救表救裏宜四逆湯救表宜桂枝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16) 陽明病脈遲汗出多微惡寒表為未解可發其汗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17) 寸口脈浮中風發熱頭痛宜服桂枝湯·葛根湯針風池·風府向火灸身摩治風膏覆今汗出(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18) 太陽病頭痛發熱汗出惡風若惡寒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19) 太陽病脈浮而數者可發其汗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20) 太陽病脈浮者可發其汗屬桂枝湯(卷七病

可發汗證第二)

21) 太陽病發熱汗出此爲營弱衛強故使汗出欲救邪風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22) 太陽病不解熱結膀胱其人如狂血必自下下者即愈其外未解者尙未可攻當先解其外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23) 太陽病先發其汗不解而下之其脈浮者不愈浮爲在外而反下之故令不愈今脈浮故在外當解其外則愈屬桂枝湯(卷七病發汗吐下以後證第八)

24) 太陽病外證未解其脈浮弱當以汗解宜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25) 太陽病初服桂枝湯而反煩不解者當先刺風池風府却與桂枝湯則愈(卷七病可刺證第十三)

26) 太陽病初服桂枝湯而反煩不解者法當先刺風池風府却與桂枝湯則愈(卷七病可發汗證第二)

27) 太陽病下之氣上撞可與桂枝湯不撞不可與之(卷七病可發汗證第二)

28) 太陽中風脈浮而陰濡弱者熱自發濡弱者汗自出蓄蓄惡寒漸惡風翕翕發熱鼻鳴乾嘔屬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29) 下利後身疼痛清便自調急當救表宜桂枝湯(卷七病可發汗證第二)

(이하 생략)

#### 4) 『脈經』의 상한관련 處方名

상한관련 처방명은 우선 위의 과정에서 선별한 문장들 가운데서 여러가지 처방의 유형들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을 취했다. 처방의 유형선정은 『千金要方』에 기재된 상한학설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湯, 散, 丸, 膏, 汁, 酒, 醋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sup>21)</sup>. 그

결과 121개의 처방명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처방들 중에 宋本傷寒論의 처방명과 동일한 것은 65개 처방이 있고 다시 상한론 조문과 처방명이 같은 것이 56개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상한론 조문 208, 209, 212, 215, 217, 220, 238, 240, 242, 251, 252, 256, 320, 321, 322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陽明病脈遲雖汗出不惡寒者其身必重短氣腹滿而喘有潮熱者此外欲解可攻難也手足濇然汗出者此大便已硬也大承氣湯主之若汗多微發熱惡寒者外未解也其熱不調未可與承氣湯若腹大滿不痛者可與小承氣湯微和胃氣勿令大泄下(208)”, “陽明病其脈遲雖汗出而不惡寒其體必重短氣腹滿而喘有潮熱如此者其外爲解可攻其裏若手足濇然汗出者此大便已堅屬承氣湯其熱不潮未可與承氣湯若腹滿大而不大便者屬小承氣湯微和胃氣勿令至大下(脈經卷七病可下證第七1237)” 처럼 大承氣湯의 명칭이 『脈經』에서는 承氣湯으로 되어 있었다. 253, 255에 해당하는 부분은 맥경에 내용이 없었고, 253에 해당하는 부분은 大柴胡湯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한 241는 내용은 있으나 처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剛瘧爲病胸滿口噤臥不着席脚攣急其人必齧齒加與大承氣湯(卷八平瘧濕暍脈證第二1485)”이라는 문장 때문에 大承氣湯을 상한론처방이 맥경에 사용된 예 65개에 포함시켰으며, 맥경중의 상한처방이 121개라는 것은 承氣湯과 大承氣湯을 구분하여 모두 계산한 것이다. 또한 맥경에서 『傷寒論』을 인용한 부분중의 『傷寒論』 처방은 모두 59종이 기재되어 있다. 표5는 脈經에서 傷寒學說을 언급한 부분에 기재된 宋本傷寒論 處方名과 송본상한론을 직접 인용한 부분에 사용된 宋本傷寒論 처방을 도표화 한 것이다.

21) 이병욱의 3인: 『千金要方』에 기재된 상한학설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4(2), 2001. p.133.

〈표4 맥경에 기재된 처방 송본상한론 처방〉  
(\*은 기타 상한학설에 기재됨)

脈經의 傷寒論 처방	脈經의 傷寒論 처방
葛根加半夏湯	文蛤散
葛根湯	蜜煎導
葛根黃芩黃連湯	半夏瀉心湯
甘草乾薑湯	白虎湯
甘草附子湯	茯苓甘草湯
甘草瀉心湯	茯苓四逆湯
甘草湯	附子湯
乾薑附子湯	四逆湯
乾薑黃芩黃連人參湯	三物小陷胸湯*
桂枝加葛根湯	生薑瀉心湯
桂枝加桂湯	旋覆代赭湯
桂枝加大黃湯	小建中湯*
桂枝加附子湯	小承氣湯
桂枝加芍藥湯	小柴胡湯
桂枝加厚朴杏子湯	小陷胸湯*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柴胡加芒硝湯
桂枝甘草湯	柴胡加龍骨牡蠣湯
桂枝去芍藥加附子湯	柴胡桂枝乾薑湯
桂枝去芍藥湯	柴胡桂枝湯*
桂枝附子湯	十棗湯
桂枝二麻黃一湯	五苓散
桂枝人參湯	禹餘糧丸
桂枝湯	茵陳蒿湯
桔梗湯*	芍藥甘草附子湯
當歸四逆湯*	芍藥甘草湯
大承氣湯(承氣湯)	豬膽汁
大柴胡湯	抵當湯
大青龍湯	抵當丸
大陷胸湯	赤石脂禹餘糧湯
大黃黃連瀉心湯	梔子乾薑湯
麻黃附子甘草湯	梔子厚朴湯
麻黃升麻湯	厚朴生薑半夏甘草人參湯
麻黃湯	

脈經중의 상한처방 121개는 다음과 같다.  
葛根加半夏湯, 葛根湯, 葛根黃芩黃連湯, 甘草  
乾薑湯, 甘草附子湯, 甘草瀉心湯, 甘草湯, 乾  
薑附子湯, 乾薑黃芩黃連人參湯, 乾地黃湯, 鷄  
屎白散, 桂枝加葛根湯, 桂枝加桂湯, 桂枝加大

黃湯, 桂枝加附子湯, 桂枝加芍藥生薑人參湯,  
桂枝加芍藥湯, 桂枝加黃芪湯, 桂枝加厚朴杏子  
湯,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桂枝甘草湯, 桂枝去  
桂加茯苓朮湯, 桂枝去芍藥加附子湯, 桂枝去芍  
藥湯, 桂枝附子湯, 桂枝二麻黃一湯, 桂枝人參  
湯, 桂枝湯, 苦參湯, 括蕒桂枝湯, 括蕒薤白白  
酒湯, 橘皮桔梗湯, 內補散, 當歸四逆湯, 大承  
氣湯, 大柴胡湯, 大青龍湯, 大陷胸湯, 大黃附  
子湯, 大黃黃連瀉心湯, 大黃黃蘗梔子芒硝湯,  
桃仁承氣湯, 麻黃附子甘草湯, 麻黃升麻湯, 麻  
黃湯, 麻黃杏子甘草石膏湯, 牡蠣散, 文蛤散,  
蜜煎導, 半夏加茯苓湯, 半夏瀉心湯, 防己湯,  
防己黃芪湯, 白頭翁加甘草湯, 白散, 白酒湯,  
白虎加桂枝湯, 白虎湯, 鼈甲煎丸, 茯苓甘草湯,  
茯苓桂枝甘草大棗湯, 茯苓桂枝朮甘草湯, 茯苓  
四逆湯, 茯苓湯, 附子麻黃湯, 附子與杏子湯,  
附子湯, 瀉心湯, 四逆湯, 三物小陷胸湯, 生薑  
瀉心湯, 生薑湯, 旋覆代赭湯, 小建中湯, 小承  
氣湯, 小柴胡湯, 小青龍湯, 茱萸膏, 茱萸丸,  
承氣湯, 升麻湯, 柴胡加芒硝湯, 柴胡加龍骨牡  
蠣湯, 柴胡桂枝乾薑湯, 柴胡桂枝湯, 柴胡梔子  
湯, 柴胡湯, 腎氣丸, 十棗湯, 五苓散, 五味子  
湯, 禹餘糧丸, 元武湯(眞武湯), 越婢湯, 茵陳  
蒿湯, 芍藥甘草附子湯, 芍藥甘草湯, 豬膽汁,  
抵當湯, 抵當丸, 豬苓散, 諸蘘丸, 赤石脂禹餘  
糧湯, 赤小豆當歸散, 除熱湯, 竹葉湯, 知母湯,  
硝石礬石散, 朮附子湯, 治傷寒膏, 梔子甘草湯,  
梔子乾薑湯, 梔子生薑湯, 梔子湯, 梔子厚朴湯,  
治風膏, 黃芩龍膽湯, 黃芪芍藥桂枝苦酒湯, 厚  
朴三物湯, 厚朴生薑半夏甘草人參湯, 厚朴七物  
湯

### 5) 『脈經』중의 기타 傷寒治法

맥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한의 처방은 위  
에서 언급한 증경의 상한론에 나왔던 처방과  
방법 이외에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

## (1) 針灸治療

## ① 송본상한론의 침구치료

송본상한론에는 오치를 포함하여 상한의 침구치료에 관한 내용이 26개 조문에 27건이 기재되어 있다. 치료방식은 단순히 針을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자침 부위를 언급한 것, 경혈의 자침방법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 灸를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灸의 시술부위를 언급한 것, 灸의 시술부위와 壯數를 언급한 것, 誤治를 기재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따라서 상한의 침구치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 宋本傷寒論에 기재된 상한의 기타 치법

분류(숫자는 조문번호임)	
1. 針을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불가포함)	- 16, 117, 118, 153, 308
2. 자침 부위를 언급한 것	- 8, 24, 171, 142, 143, 216, 231
3. 경혈의 자침방법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	- 108, 109
4. 灸를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 304, 325, 349, 362
5. 灸의 시술부위와 壯수를 언급한 것	- 117, 292
6. 灸의 시술부위를 언급한 것	- 343
7. 誤治를 기재한 것	- 29, 115, 116, 119, 221, 267

## ② 脈經의 傷寒에 대한 침구치료

맥경에는 오치를 포함하여 상한의 침구치료에 관한 내용이 66개 레코드에 71건이 기재되어 있다. 치료방식은 단순히 針을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자침 부위를 언급한 것, 경혈

의 자침방법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 자침에 사용되는 침의 종류를 기재한 것, 灸를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灸의 시술부위를 언급한 것, 灸의 시술부위와 壯數를 언급한 것, 誤治를 기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상한 치료에 대한 확실한 원칙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송본상한론에 비하여 침구를 이용한 치료법을 좀더 다양하게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熱病先膚痛壅充面取之皮以第一針五十九苛菌爲軫鼻索皮於肺不得索之火火心也(卷七病可刺證第十三1341)”와 “熱病頭痛攝顯目脈緊善衄厥熱也取之以第三針視有餘不足寒熱病(卷七病可刺證第十三1347)”처럼 발열성 질환에 구침을 병의 상황에 맞게 구분하여 쓴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第一針은 鑱針을 뜻하고 第三針은 鍅針을 뜻한다(22)(23). 또한 卷七에 病可刺證第十三을 따로 두어 상한의 침구치료에 언급함으로써 좀더 발전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22) 『脈經校釋』: 前揭書, p.443.

23) 上揭書, p.448.

표 6 맥경에 기재된 상한의 기타 처법

분류(숫자는 레코드 ID)
1. 針을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불가포함) - 645, 646, 1101, 1260, 1318, 1335, 1339, 1355, 1378, 1395, 1442, 1530, 1599
2. 자침 부위를 언급한 것 -166, 262, 263, 265, 269, 274, 293, 1001, 1113, 1328, 1329, 1332, 1333, 1334, 1349, 1352, 1353, 1354, 1356, 1974, 1976
3. 경혈의 자침방법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 -1330, 1331, 1336, 1337, 1340, 1343, 1351
4. 자침 시 사용할 침의 종류를 분류한 것 -1341, 1343, 1344, 1345, 1346, 1347, 1349
5. 灸를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 1318, 1319, 1321, 1599, 1715
6. 灸의 시술부위와 장수를 언급한 것 - 1320, 1322, 1323, 1324, 1415
7. 灸의 시술부위를 언급한 것 - 1101
8. 誤治를 기재한 것 - 1132, 1314, 1315, 1316, 1192, 1243, 1277, 1290, 1379, 1386, 1506

(2) 其他 治法

송본상한론 조문 233번 “陽明病自汗出若發汗小便自利者此胃津液內竭雖硬不可攻之當須自欲大便宜蜜煎導而通之若土瓜根及大豬膽汁皆可爲導”와 맥경 레코드 1201번 “陽明病自汗出若發其汗小便自利此爲內竭遂堅不可攻之當須自欲大便宜蜜煎導而通之若土瓜根及猪膽汁皆可以導(卷七病不可下證第六)”에는 모두 口服이 아닌 坐藥 형태의 傷寒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맥경에는 또다른 형태의 치료법이 등장하는데, 레코드 262번 “寸口脈浮中風發熱頭痛宜服桂枝湯·葛根湯針風池·風府嚮火灸身摩治風膏覆今汗出(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263번 “寸口脈緊苦頭痛骨肉疼是傷寒宜服麻黃湯發汗針眉衝·顛顛摩治傷寒膏(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264번 “寸口脈微苦寒爲衄宜服五味子湯摩茱萸膏今汗出(卷二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

처럼 膏藥을 피부에 바르는 방법이 나온다. 이로써 맥경은 송본상한에 기재된 張씨의 『傷寒論』보다 좀더 다양해진 傷寒치료법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結 論

著者は本論의 研究를 통하여 『脈經』에 기재된 傷寒學說에 관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脈經』은 宋本 『傷寒論』 조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문장 257개를 282곳에 기재하고 있으며, 傷寒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治法을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可’와 ‘不可’의 체계로 배열하고 있다. 그리고 王叔和는 中經 저작의 조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임상에서 구체적인 治法을 언급하지 않은 綱領같이 극히 이론적이며 직접적인 치료와 변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문들을 기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맥경의 상한학설의 범주는 張仲景의 『傷寒論』에 해당하는 내용과 張씨의 『傷寒論』 이외의 풍한으로 인한 상한에 관한 내용 그리고 광의의 傷寒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처방으로 분석해보면, 『脈經』에는 宋本 『傷寒論』에 기재된 총 114개의 처방명중 총 65개의 처방명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상한관련 처방명을 포함해서 121개의 처방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傷寒의 침구치료에 관해서는 오치를 포함하여 상한의 침구치료에 관한 내용이 66개 레코드에 71건이 기재되어 있다. 치료방식은 단순히 針을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자침 부위를 언급한 것, 경혈의 자침방법까지 자세히 언급한 것, 자침에 사용되는 침의 종류를 기재한 것, 灸를 이용한다고만 언급한 것, 灸의 시술부위를 언급한 것, 灸의 시술부위와 壯數를 언급한 것, 誤治를 기재한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따라서 상한 치료에 대한 확실한 원칙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송본상한론에 비하여 침구를 이용한 치료법을 좀더 다양하게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傷寒의 其他 治法에는 膏藥을 피부에 바르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IV. 參 考 文 獻

1.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所, 서울, 1987.
2.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의학대사전』, 정담, 서울, 1988.
3. 重慶市科學技術協會: 『傷寒論手冊』,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重慶, 1984.
4. 成无己: 『注解傷寒論』, 遼寧科學技術出版社, 沈陽, 1995.
5. 福州市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2.
6. 趙法新의 3인: 『中醫文獻學辭典』,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7. 鄭城采: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8. 이병욱의 3인: 『千金要方』에 기재된 상한 학설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4(2), 2001.